

# 부산시, 혁신도시 구축 등 내년 본예산 15.3조 '역대 최대'

채무비율 관리... 재정건전성 강화 '해피챌린지' 시범 권역 조성 신노년 세대 활동·참여 확대

부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한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대비 7.6% 증가한 15조 3480억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과 2022년 2회 추경예산 5640억원 규모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 관리채무비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1.9%p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시는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



는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767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해피(Happy)챌린지' 시범 권역을 조성하고, 대표 프로젝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 전역에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 신규로 28억원을 들여 '하하(HAHA)센터'를 조성해 신노년 세대의 활동과 참여를 확대하며,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1030억원을 투입해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앞당길 디지털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 23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중단 없는 발행을 위해 시비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향후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추가 논의와 추경을 통해 추가 운영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1966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우선 시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과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 세계 최초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해상도시 산업 선점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796억원 증액 편성한 58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시는 자연재해위험지, 상습침수지, 붕괴위험지 등 정비사업을 올해보다 6개 늘여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산학이 중심이 되는 창업금융도시'에 1024억원을,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에 2636억원을,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174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해남군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협약

해남군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땀과 희망이'와 연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남에서 인천까지 릴레이 방문 현장 서명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협약 기관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 민간단체·유통기업·협력사 8개사 등 총 18개소가 참여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주민들이 배출한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 거점시설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포인트로 적립한 후 보상하는 사업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친환경 디자인 우수성 입증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오는 11일 열리는 제7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는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건축물 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황룡강에 인접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수려한 경관을 잘 살린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공모에서도 강변 풍경과 건축 미학적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전남교육청-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모습. /전남교육청

## 전남교육 '상생발전' 맞손

### 전남교육청-지역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판로 지원제도 활용 등 건의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와 정책건의를 듣기 위해 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임경준 회장 등 5명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과 전남교육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제도(협동조합추천 구매)의 적극 활용, 각급 학교 졸업앨

범 구매 시 MAS제도 적극 활용 권장, 공사 계약 시 가구 종류 분리발주 등을 건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계약 관련 교육 때 협동조합추천 계약 제도를 교육하고 매년 졸업앨범 구매 시 MAS제도 적극 활용 권장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 리모델링 공사 발주 시 분리발주가 효과적인 경우 분리발주토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임경준 회장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교육기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 만든다

###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5분 도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산시의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건수(46%) 및 사망자 수(13.2%) 보다 신호 횡단보도 사고건수(54.0%) 및 사망자 수(86.8%)가 오히려 더 많았다.

또 횡단보도 사망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따른 사망사고(21.2%)에 비해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66.7%)가 높았다.

사고 연령은 65세 이상이 가장 많고, 시간대는 오전 4시~6시, 오후 8시~10

시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횡단보도 내에서의 보행자 신호위반 예방과 도로 시인성 강화, 노년층 취약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적색등, 녹색등 모두 전체 잔류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설치 ▲눈에 띄는 보도 판석 포장 ▲보도 경계석 폭 확대(20cm→40cm) ▲운전자로부터 보행자 인지를 위한 보행자 집중조명 설치 등이 있다.

또 운전자의 시인성 제고를 위해 횡단보도 전 20m가량을 차량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인지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 차선으로 도색하고, 스마트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포항 '스페이스 워크', 공간문화대상 영예

### 포항 환호공원에 만든 상징 조형물

포항의 명소 '스페이스 워크'가 올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으로 선정돼 8일 대통령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지역공원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스페이스 워크를 올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으로 선정, 이날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인 포항시와 상생 협력하고자 2001년 200억원을 기부, 포항 환호공원에 만든 상징 조형물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원으로만 머물렀던 환호공원이 대한민국의 명소로 재탄생했다. 소유



포항 스페이스워크

와 운영은 포항시가, 건축은 나인디렉터스엔컴퍼니와 나인아키텍처스 건축사무소가 맡았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에는 '밀락더마켓'이 선정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조성된 '밀락더마켓'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보장한 공공공간이다.

/포항(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3년 만에 '광주 맛 페스타' 개최

### 광주 주류페스타 동시 개최

광주광역시와 미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 광주 맛(味) 페스타'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주시 주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으로 광주 대표음식 7미 외에 도 지역의 백년가게, 청년소상공인,

유명 맛집·디저트가게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한다.

또한, 호남 최초의 주류박람회인 '2022 광주 주류페스타'와 동시에 개최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현장으로 구성된다.

광주 대표음식 7미는 광주오리탕, 송정리향토떡갈비, 광주계절한식, 광주육전, 무등산보리밥, 상주튀김, 광주주먹밥 등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 상주꽃감, 말레이시아 수출길

상주꽃감유통센터영농조합법인인 지난 7일 회원농가, 수출업체 주식회사 현농프레쉬(대표 이나미), 상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꽃감 말레이시아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꽃감은 약 1.6톤,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상당의 많은 물량을 해외로 수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수출 이후 꽃감 거래 물량이 거의 없었으나 올해 수출 재개로 앞으로 꾸준히 수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꽃감은 국내생산량의 60%를 점유하는 상주 대표 특산품으로 지난해 41톤(약 7억 5천만 원)을 캐나나, 호주, 미국, 동남아 등 해외 각국으로 수출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